



홍 우 컬 럼

있을 때 잘해!

지난주 나는 기도원에서 지냈다. 장마 기간이라 일주일 내내 비가 내렸다. 나는 그 비를 맞으며 복잡한 심경을 달랬다. 예년 같으면 지금 기도원은 전국에서 물려든 젊은이들로 가득 차 축제 분위기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온 성도들이 참석하는 하계산상집회가 배설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기도원에는 적막만이 흐른다. 전국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염병 때문이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기도원 집회를 준비한 기도원 식구들을 위로 차 나는 기도원에 내려갔고, 허탈한 나는 하나님께 위로를 구했다.

누구든 있을 때는 고마운 것을 잘 모른다. 귀한 것도 잘 모른다.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는 고마운 줄 모르다가 돌아가신 후에야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도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하고 귀찮아하다가 떠나보내고는 후회한다. 친구도, 젊음도, 건강도 다 그렇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한다.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 효도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해야 하고, 가족에게도 같이 있을 때 잘해야 하고, 건강도 건강이 있을 때 지켜야 하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있을 때 잘해'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은 어차피 유통기한이 있다. 누구나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살아 있을 때 잘해야 한다. 나중에 말고 지금 잘해야 한다. 나는 지난 예배 영상을 볼 때면 그 사이에 천국에 간 자들의 얼굴을 눈여겨본다. 그들도 자신이 그렇게 빨리 갈 것을 알았다면 더욱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올해 청소년수련회를 못할 줄 알았다면, 산상집회를 못할 줄 알았다면 작년에 더 열심히 했을 것이고, 꼭 참석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코로나19로 잃은 것도 많고 제약도 많지만, 그로 인해 깊은 진리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매사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실 것이다. 있을 때 잘하자!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자!

거짓말을 미워하고 죽여 버려라!

지난 수요일저녁예배에 우리는 2005년 제9회 세계 목회자 영성세미나 실황을 담은 영상을 보며 은혜를 나누었다. 이시대 목사님 표현처럼, 이는 하나님이 직접 각본을 쓰시고, 연출하신 성령의 역사요, 우리 교단의 생생한 역사의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2000년부터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아시아 뿐 아니라 동유럽, 남북미, 아프리카, 나아가 서유럽 및 호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오대양 육대주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갔고,

있던 “거짓말을 죽여 기도원에 묻고 가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바꾸어놓았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 때 그 말씀을 다시 상고해보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마5:29~3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그동안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왔습니까? 오늘 이것부터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나 또한 거짓말도 많이 했고, 그로인해 말의 실수가 많아 3년간 조약돌을 입에 물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시편119편 163절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시 119:163). 거짓을 미워해야 합니다. 미움은 살인이라 했으니 오늘 거짓을 미워하고 죽여서 이 기도원에 묻고 내려간다는



2005년 제9회 세계 목회자 영성세미나 광경(장성 예루살렘기도원)

2007년까지는 매년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으로 세계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영성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들은 영성세미나와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된 서울집회를 경험하며, 우리 교단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생생히 목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며, 실제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습득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다. 실제로 세미나 이후 해외현장에서 청취된 간증들을 들어보면 세미나 참석 후 교회가 배가되는 역사들이 나타났으며, 세미나에서 배운 말씀이 그들의 삶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고백을 들곤 하였다.

특히 영상으로 본 2005년 세미나 이후 그해 9월의 우크라이나 집회에서 만난 블라디미르 목사나 10월 멕시코 집회에서 만난 헤라르도 목사, 엑톨, 라구나 선교사 등은 이구동성으로 세미나에서 들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12:36~37).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고(눅18:27)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지만, 딱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딱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요8:44).

그런데 여기 오신 목사님들, 왜 목회가 안 되고,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왜 여러분의 삶이 피폐한 줄 아십니까? 가슴

면 여러분 목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거짓말을 죽여 물어버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된 수요일저녁예배 후, 세계 각지에서 깨달음과 은혜에 감사하는 문자메시지가 목사님께 쇄도했다고 한다. 또한 이 역사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며 세계 목회자 영성세미나에 물질을 대겠다는 사람도 나타났다고 한다. 반드시 이 코로나가 물러가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다시 한 번 벅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보자.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극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37:1~11)

네 신앙은 짝퉁이나, 명품이나?

과일은 익을수록 향이 좋습니다. 그러나 과일이 썩으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꽃향기는 은은하고 매혹적이지만, 썩으면 그 또한 냄새가 아주 고약하고, 독소까지 뿜어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합니다.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갈5:22~23).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잃으면 온갖 더럽고 추악한 냄새를 뿜어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롬1:29~31)의 냄새입니다.

여러분, 내 체취는 내가 못 맡고 남이 맡습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아니면 내게서 세상에 찌든 냄새와 세상의 썩은 오물 냄새가 나는지 옆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지 한 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8음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그중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따뜻할 온(溫), 부드러운 유(柔)로,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통이나 억울함 심지어 굴욕 속에도 내면적으로 부드러운 심령을 견지하고 겸손히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을 뜻합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5:5),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이로다"(시37:11).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먼저는 천국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지요. 둘째는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 저절로 복이 따라옵니다.

과일은 익을수록
향과 맛이 좋다

여러분, 온유함의 대명사는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민12:3). 민수기 12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을 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회막으로 나오게 하신 후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자 미리암은 그 자리에서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모세가 보는 앞에서 말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을 보고는 "내게 덤비더니 샘통이다."라고 했을 테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

니다. 모세는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어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민12:13). 이런 모세에게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고라의 반역 등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지만 모세는 온유함을 잃지 않았고, 백성들의 끝없는 불평 속에서도 모세는 온유함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새 민족을 이루자고 제안하십니다. 여기서 모세의 온유함이 극명하게

표출됩니다. 모세는
오하여 하나님
의 진노를
가라앉
히며
하

나
님의
악 속 된
백성을 지
켜달라고 호소
합니다(민14:11~19).

문득 제가 작시한 '모래와 파도'라는 곡이 생각나네요. 목회 초기,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혼자 제주도에서 혼자 상념에 잠겨있는데, 거센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니 파도가 자지러지며 물러가고, 받아친 바위도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모래사장을 보니 같은 세찬 파도가 물러와도 모래는 그것을 다 안아 잠재우고 물방울을 만들며 방글방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찬 파도를 안는 통 큰 자가 되리라. 온유한 자가 되리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함은 통 큰 자에게 합당합니다(고후5:13).

사도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는 거센 파도에 정면 승부하는 바위 같은 자였습니다(행9:1).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는 산산이 부서져 모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꺾박하는 자들을 다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돌덩이가 깨져야 온유한 자가 됩니다. 헐기를 깨버리고, 조급을 제하고, 다툼을 부셔내야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4:2~3)고 했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

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 하

라
이
는 온
전 하 게
매는 띠니
라"(골3:12~14)
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온유하면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과 태양이 나그네 옷 벗기기 시험을 하는 우화를 아시지요? 누가 이깁니까? 칼바람이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따스한 태양이 이겼습니다. 결국엔 온유한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가면서도 양처럼 온순하셨습니다. 침을 뱉고, 때리는 자에게 도전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사53:7). 그래서 그분이 그들에게 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인류 앞에 다시 서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11:29).

이삭도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으면 싸우지 않고 우물을 그냥 넘겨주곤 했습니다. 그런 이삭은 거부가 되었고, 마침내는 아비멜렉이 화친을 청해오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따뜻한 곳에 꽃이 먼저 피고, 말이 따뜻한 자,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 곁에는 사람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허로 만든 음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시장에 나온 제자들은 소의 혀, 말의 혀 등등을 가져갔는데, 스승은 이것들을 시식을 해보라고 하고는 어느 것이 제일 맛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한 가지 음식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부드러운 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라처럼 뻥하면 헐기 내는 자를 좋아할 자 없습니다. 기타 줄처럼 파르르 하는 자 곁에 가까이 갈 자 없습니다. '왜 내 곁에는 사람이 안 올까?' 하는 고민에 빠져있습니까? 생수처럼 온유한 자가 되면 사람이 몰려옵니다.

골라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생수 같은 자가 되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명품 인생, 명품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명품은 참 부드럽습니다. 백을 만져봐도, 옷을 만져봐도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명품 인생이 되려면 먼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잠25:28). 그러면 목사들도 성도들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고, 온유함으로 권면하게 됩니다(딤후2:24~25). 또한 남편이나 아내들도 온유함으로 가정을 이끌게 됩니다(벧전3:1~4).

늘 말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쓰는 자서전입니다. 모래처럼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나, 아니면 바위처럼 노를 발하여 다 부서버릴 것이나, 그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있습니다(잠4:23).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령충만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약1:20~21).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차든지 답든지 분명히 하라

지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서구 자본시장이 위축되었을 때, 중국공산당이 실질적 대주주라 할 수 있는 중국의 대형 투자기관 및 대기업들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기업 및 자산의 인수를 급격하게 확장해왔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해외 현지시장의 개척 및 자국 산업의 향상을 위한 기술취득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지역에서의 정치, 문화적 지배력 확대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의 활성화로 인한 중국자본의 지배력은 미국중심의 전통적 우방국, 그리고 유럽연합국가간의 결집력까지 약화시켰으며, 단기적으로 거래조건이 쉬운 중국기업체와의 거래는 다수의 기업, 기관 및 단체들에게 중국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이지만 중국이 가속화시킨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원된 COVID19 사태는 전 세계, 특히 북미, 서유럽 국가들에게 단순히 저렴한 생산 원가에 현혹되어 중국을 과하게 의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하방위험(Downside risk)의 비용에 대한 범위를 재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각 연방 및 주정부는 긴급재난구호물자는 물론 일체의 관용물자 조달과 관련 완성품 및 원부자재까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발주를 이미 중단하였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들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상장폐지를 유도하려는 안(案)을 이미 발표하였습니다. 비록 국내 언론매체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 있지만 중국의 금융 및 제조업체들은 자본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체들에게 기계설비 및 원부자재 등을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제공하여 서구시장에 수출하도록 유도하면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고, 또한 정부 주도하에 관리되고 있는 중국의 역외펀드들은 자본시장은 물론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의 시장까지 깊게 진출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정상국가들도 외국자본이 자국시장에 이와 같이 진출하여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OVID19 사태가 해소되더라도 각국의 경제상황이 이전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특히 보호무역의 정도가 크게 상승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리아 프리미엄이 유지될 수 있을 때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리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고 과감하게 방향전환을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유지해야만 국제시장에서 존속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차든지 답든지 분명히 하라(계 3:15)고 명령하고 있고, 총회장 목사님께 서도 “나는 착한 사람보다 분명한 자를 좋아한다.”며 매사 분명한 자세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임윤석 집사

:: To Be Succeeded ::

매사 주님이 보고 계신다

공원에서 공중화장실을 다녀오더니 딸 아이가 묻는다. “엄마, CCTV가 뭐예요?” CCTV의 용도와 목적을 알려주자 “그럼 제가 손 씻는 모습도 다 찍혔겠네요?”하고 놀라는 기색이다.

사람들은 우리 행실의 일부가 CCTV에 찍히는 건 잘 알지만, 우리의 일생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눈앞에 찍힌다는 사실은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산다. 더 놀라운 것은 CCTV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기에(렘17:10) 그분 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같이 모두 드러난다는 사실이 다(히4:13).

수요예배가 있던 어느 날이었다. 누군가와 약간의 의견충돌이 있었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는 예배에 가려던 참이었다. 별 거리낌 없이 예물을 준비하려고 봉투에 손끝을 대자마자,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와 쫓겼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5:23~24). 순

간 ‘아까 나의 모든 행위와 중심의 생각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에 아찔했다. 그 후로도 몇 번의 뼈아픈 경험을 더한 뒤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하고 생각하며 돌아보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나님 앞에서’(Coram Deo)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준 대표 인물로 대개 요셉을 꼽곤 한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예로 일하던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의 강력한 유혹을 망설임 없이 잘라내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중심, 내 영혼까지 밝히 비추고 드러낼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명명백백하게 판단하는 유일무이하며 검증된 도구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확인한다(시1:2).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국진 사모
joyful_jina@hanmail.net

믿음의 비전을 품어라

“세계는 나의 교구다.”

철산리에서 한 명을 놓고 목회를 시작하신 목사님은 당시에 어느 누가 보고 들어도 열토당도않은 비전을 품으셨다. 36년이 지난 지금 그 비전은 전국과 전 세계에 복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패배자는 과거를 말하고, 평범한 사람은 현재를 말하며, 위대한 사람은 미래를 말한다고 한다. 보통의 사람들은 시대적 상황을 한탄하며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나, 믿음의 선전들은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가짐으로 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며 삶의 증인이 되었다.

믿음의 비전은 사람들의 비웃음, 비난, 방해, 음모 등 갖가지 훼방을 피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게 한다. 믿음의 비전은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원망치도 않고, 자기중심을 지키며 믿음의 간구를

하게 된다. 요셉이 그러했다.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의 꿈은 꿈은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기에 13년의 세월을 통해 결국 이루어냈음을 보게 된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잠29:18). 여기서 ‘목시’는 영어 성경에 비전(Vision)으로 기록되어 있다. 비전이 없는 자는 제멋대로 행하고, 이를 이사야서에는 ‘비전이 없는 자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고 했다(사22:13). 그러나 비전이 있는 자는 인내하며 기다린다.

강한 비전은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낸다. 모두가 힘들다 하는 시대에 믿음의 비전을 품어 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생명의 말씀 ::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일본강점기 때 평안북도 정주에 백영순 집사라는 분이 있었다. 그는 섬기는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유산으로 물려받은 서마지기를 바쳤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찰로 봉사했다. 이 소문을 들은 미국에서 온 매륜 선교사가 백영순 집사의 아들을 공부시켜 주었다. 그 아들은 영창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가서 신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 파크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을 거쳐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 그리고 연희전문 의 교수로 사역하다가 문교부장관을 거쳐 연세대학교 초대총장이 되었다.

후일에 그의 어머니는 “당시 전답을 팔아서 공부시킨 자식들은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논을 팔아서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공부시켜 주셔서 세상을 밝힌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간증을 하였다. 그분이 바로 유명한 백낙준 박사이다.

하나님은 심은 것만큼 거두는 법을 가르쳐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는 법을 더 좋아한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법을 알고 싶어 한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회개해

야 한다. 적게 심고도 많이 거둘 수 있기 바랐던 우리의 욕심을 회개해야 한다. 우리들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성장하여 열매를 거두어 먹고 살게 된다.

곡식은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둔다. 과일 나무를 심으면 몇 년 후 그 열매를 얻게 된다. 재목을 기대하고 산에 나무를 심으면 몇 십 년 뒤 아름답디 목재를 얻게 된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어떤 것은 매일 심고 매일 거두며, 어떤 것은 매월 심고 매월 거둔다. 어떤 것은 매년 심고 매년 거두며, 어떤 것은 부모가 심고 자녀가 거둔다. 어떤 것은 이 세상에서 심고 하늘나라에서 거둔다.

심은 자만이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심은 대로, 종류대로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어야 한다. 자기가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여러분들이 심은 것을 자식들이 거두어 먹고 살 것이다. 좋은 것 많이 심어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리기를 소망한다.

임택함 목사

줄기세포와 신앙생활

오래 오래 살면서도, 젊고 활기차게 살고 싶다는 인류의 소망은 진시황의 것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성서의 기록처럼 노아의 대홍수 이전 969년을 살았다고 전해지는 므두셀라(Metheselah)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인류는 지금보다는 더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21세기에는 유전자의 노화와 손상의 원인, 그리고 줄기세포의 유전자 복원 기능이 연구 개발되면서 생로 병사의 비밀과 그 해법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세포나 장기로 성장하는 일종의 모세포로, 간세포(幹細胞)라 불리기도 합니다. 신체에 존재하는 210여 개 세포 유형 중 손상된 세포를 복원하기 위해 자체 성장할 수 있는 매트릭스의 능력을 지닌 줄기세포는 당뇨병, 백혈병, 치매, 파킨슨병, 뇌경색, 심장병, 척수외상을 비롯한 수많은 치명적 질환을 치료하는데 놀랍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명이 줄어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우리 몸속의 유전자 DNA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인님의 몸속에서 ‘면역세포’를 통해 세균 등 외부 환경에 대한 경찰활동과 즉각적인 방위 활동으로 주인님의 질병을 방어하고 암세포들을 몰아내

었고, 손상된 장기나 부위는 ‘줄기세포’를 동원하여 복원시키고 장수하게 해드렸지만, 주인님은 우리 유전자 DNA를 만드신 하나님의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늘 무시하며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무절제하고 문란한 생활과 바벨탑을 만드는 등 스스로 환경파괴를 일으켜 우리 유전자를 파괴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우리 유전자들이 남아나지 못하고 멸종에 처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인님을 장수시켜 우리 유전자를 보존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주인님의 수명을 짧게 하고 그 아들이나 손자들로 넘어가는 방식을 통해 우리 유전자 스스로를 보존하자.”라고 결정하고 유전자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드디어 신군부의 유전자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유전자 반란, 즉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신군부 유전자들은 자기들의 결의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층 유전자와 줄기세포를 삼청교육대에 보내고 신군부 유전자에 반기를 드는 유전자의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해 텔리미어의 숫자제한, 텔리미어의 시간 축소 등으로 유전자 복제 횟수를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면역체계를 약하게 하고 줄기세포를 혈액, 골수, 지방 등 주인인 인간의 몸 여러 곳에 꼭꼭 숨겨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인류의 수명은 급격히 단

축되었고, 면역체계의 기능저하로 인해 각종 암과 치명적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무병장수를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절제된 생활을 해야만 하고 좋은 음식과 건강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줄기세포(Stem Cell)는 말 그대로 인간 생명활동의 근간(줄기)이 되는 세포입니다. 줄기세포는 성인의 경우 각 조직마다 0.2~0.3% 정도의 소량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중년 이후 노년기에는 1년에 10억~20억개씩 소모되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줄기세포가 다 소모되면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생명 연장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 그동안 신군부 유전자들이 억압하고 숨겨두었던 ‘면역체계와 줄기세포’를 찾아내어 증폭하고 증강하여 다시 우리의 몸속에 투여하는 의학 적 시도가 본격적으로 역사 전면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이런 요법들이 복원되면서 최근 난치병에서 해방되고 젊고 오래 사는 장수의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다시 유전자의 재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앞에서 살아가는 삶(Coram Deo)으로서 절제하고 기도하며 근신하는 신앙생

활을 철저히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줄기세포는 상처나 질병으로 기능을 잃은 심장, 뇌, 폐, 신장 등 내장기관이나 피부, 뼈조직 등을 재생할 수 있으며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후 편마비, 심근경색, 파킨슨병, 루게릭병, 척추관절질환과 희귀 난치질환들이 줄기세포로 치료되고 있으며 100세 시대에 유병장수가 아닌 무병장수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혼자 100세 이상 살면서 여러 질병에 시달리며 대소변처리를 타인의 간병으로 의지하며 살거나 홀로 요양원에 들어가 사는 것은 장수의 축복이 아니고 장수의 저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최첨단 바이오 시대가 열렸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여러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양한 스포츠, 골프, 배우자와의 성생활, 유럽 배낭여행이 가능한 건강한 100세를 원하십니까?

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며 난치병의 경우 목사님의 안수기도와 더불어 줄기세포의 문을 두드리보십시오.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선물하며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축복을 잘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학박사 안계훈 집사

:: 부르심의 소망 ::

우리 등불이 되어 빛을 밝히자!

대한민국 이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조선시대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16세기 말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00년에 걸친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일본을 통일한 후, 명나라를 정복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1592년 4월 14일 조선에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조선의 가장 큰 위기였던 임진왜란입니다. 당시 조선은 이미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연산군 이후 명종 대에 이르는 4대 사회와 훈구·사림 세력 간에 당파 싸움으로 중앙 정계가 혼란했습니다. 선조 즉위 이후 득세한 사림세력이 분열되면서 혼란은 격화되었고, 백성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게다가 조선 건국 후 약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국방력 강화에 소홀했는데, 16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양반사회의 분열과 군역제도의 문란으로 인해 국방력이 가장 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본군이 부산에 쳐들어온 지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습니다. 일본의 정비된 조총 앞에 오합지졸 조선군의 활은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6월, 의주로 도망간 선조를 잡기 위해 일본군은 평양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의주까지 진격해서

선조를 잡았다면 우리 민족은 조선시대를 마지막으로 역사가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평양에서 진격을 멈췄습니다. 마치 조선이 다시 싸울 수 있도록 누군가 막아준 것처럼 말입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났고 광재우를 비롯한 많은 의병장들과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조선은 임진왜란에서 겨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류성룡은 장비록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늘의 은혜였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조선시대에는 ‘예조’라는 중앙관청을 통해 왕이 주도적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아말렉 족속 등 우상 숭배하는 민족은 다 멸절 당했는데, 우리 민족은 왜 살리셨을까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300년이 지난 후,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원산에서 회개 운동을 시작으로 평양 대부흥을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본 매티노플 선교사는 “1907년 1월 2일, 위대하고 영광스런 흥분상태가 나타났던 사람들은 죄에 대해 통회했고, 우리 선교사들은 이 민족

과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기도한 대로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걸까요?

2020년 6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고, 9월 중에 국회에 상정,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또 지난달에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대책으로 정규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전략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5000년 동안 960번의 외침이 있었으나, 우리 민족은 수차례 죽을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며 여기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같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을 받는 사람들이여, 대열을 갖추고 각자의 위치에서 등불을 밝힙시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 거룩히 쓰임 받게 될 때에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 예수중심교회가 서 있을 것입니다.

박영신

여보게!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아님가?
한 장의 벽돌이 쌓여
빌딩을 이루고
한 방울의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자고로 노력하는 자를
따를 수 없는 법
매사 최선을 다하면
영광된 날이 있다네

朋友